20대가 떠나지 않는 부산 만들어줬으면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
부산서 즐기는 문화 인프라 확충



노하늘
부산시 수영구
대학생

지난 4월 1일, 부산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청년인구는 2001년부터 20년간 연평균 약 3만 명이 순유출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민선 8기 부산시정은 청년이 떠나가지 않는 부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최우선은 '청년 일자리 확대'이다. 부산은 수도권에 비해 이렇다 할 대기업이 없다. 알만한 대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좋은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공공기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부산의 청년인구 이탈과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문화생활의 다양화'도 중요하다. 요즘 대학생들은 일과 삶의 조화,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시대 흐름과 방향에 맞춰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 또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부산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한정적이다. 수도권에 비해 전시나 공연(뮤지컬, 연극 등) 같은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 주변 친구들은 전시나 공연을 보러 서울까지 가기도 한다. 부산에서 즐기는 문화생활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은 관련 산업도 수도권에 비해 발전하기 힘들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가 빨리 개관해 문화 놀이터를 확충하고 뮤지컬 전용극장이나 복합문화공간이 늘어나 부산에서도 원없이 퀄리티 높은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부산에 사는, 앞으로도 부산에서 살고 싶은 대학생 관점에서,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를 민선 8기 시정이 꼭 이뤄주길 기대하고 희망한다.

외국인도 부산시민, 외국인 주민 위한 정책 늘었으면

부산형 외국인 어린이 보육 지원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기대



왕이리
부산외대
국제교류센터

저는 경북 청도가 아닌 중국의 청도 '칭다오' 출신 '왕이리'라고 합니다.

2008년 유학생으로 부산에 온 후 부산외대에서 학업을 마치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국제교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부산 거주 외국인·이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부산외국인지원협의회 위원, 부산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270호 부산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지요.

부산에 거주하는, 그리고 부산을 사랑하는 외국인 '부산시민'으로서 민선 8기 부산시정에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이 공동으로 개발한 '라이프 인 부산' 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입니다. '라이프 인 부산'은 영어·중국어·일어 등 12가지 언어로 통·번역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부산에 처음 온 외국인은 물론 아직 한국어가 서툰 부산 거주 외국인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부산 거주 외국인 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외국인 어린이는 다양한 혜택을 받지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아무런 혜택이 없어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많은 부담이 됩니다. 한국 아동과 같은 지원은 어렵겠지만 부산형 외국인 어린이 보육 지원 정책이 신설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구직에 필요한 컴퓨터나 자격증 실무 프로그램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340만 부산시민과 5만4천여 명 글로벌 시민이 함께 나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성공하고 '세계에 평화, 나라에 발전, 가정에 행복'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모든 세대 톱니바퀴처럼 서로 돕는 부산

1~3세대 어우러진 세대통합 도시
청년 멘토, 시니어 디지털 교육



윤봉숙
대한노인회
부산연제구지회장

요즘 1930년대 대공황 시대만큼이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시작해 고유가·고물가 시대가 되어 모든 이들의 삶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민선 8기 부산시정이 새로운 시작을 한다니, 우리 지역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한층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특히 저는 시니어 중 한 명으로서 부산이 '세대통합 고령친화 행복도시'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행복한 꿈을 꾸어 봅니다. 어느 세대에 치우치지 않고 1·2·3세대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에서 초·중등학생들에게 방과 후에 배드민턴이나 탁구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1세대와 3세대가 한 팀이 되어 스포츠 대회에도 참여해 자연스레 2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었던 즐거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노인들은 급변하는 시대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사회 적응 교육이 시급합니다. 요즘 음식점에 가보면 안내해주는 직원 없이 키오스크를 사용해서 메뉴를 고르고 결제까지 하는 곳이 많습니다. 다양한 정보나 혜택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야지만 볼 수 있어 어르신들은 답답함과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처럼 간편하게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금융 관련 업무를 하기도 어려워 늘 은행에 가서 기다려야 하고, 전자서명 사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지요.

청년이 멘토가 되어 시니어 디지털 교육을 돕고 어르신은 오랜 세월 쌓아온 재능을 기부해 사회에 도움이 되면서 세대간 통합이 이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다 보면 젊은이들도 부산이 고령화 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십 년 살아온 내 고향 부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또 태어나도 부산에서 살고 싶을까? 대답은 망설임 없이 "네!"입니다. 부산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시니어들도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